2025년
도서 산업 현황 보고서
(The State of the Book Industry 2025)

bmi

NAPCORESEARCH
a service of NAPCOMEDIA

도서제조협회(Book Manufacturers' Institute, BMI)**는**
이번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다음 후원사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Canon

CANON SOLUTIONS AMERICA

MÜLLER MARTINI

Your **strong partner.**

bmi NAPCORESEARCH

2025년 도서 산업 현황 보고서
(The State of the Book Industry 2025)

실행 요약 (EXECUTIVE SUMMARY)

『2025년 도서 산업 현황 보고서』는 올해 도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심층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NAPCO 미디어(NAPCO Media) 및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PRINTING United Alliance) 산하 기관인 NAPCO 리서치(NAPCO Research)는 도서 제조업체와 업계 전문가 인터뷰,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서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공급망 현황, 최신 노동 시장 상황,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제조 기술, 2025년 주목해야 할 핵심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서 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다양화되었고, 출판사와의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해외로 생산 이전 위협이 지속되는 새로운 제조 환경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인쇄 도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해, 도서 인쇄 및 제작 분야에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 또한 전통적 인쇄와 디지털 인쇄 분야 양쪽 모두에서 AI를 비롯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생산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는 해마다 그렇듯, 2025년 역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해다. 관세가 추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민 규제 강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서 제조업체들은 인쇄 산업 안에서 벌어지는 혁신 덕분에 새로운 사업 잠재력을 모색하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걱정을 덜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도서 제조업의 최전선에 나타나는 트렌드들을 분석하여, 한 해 동안 업계 관련자들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인쇄 산업과 도서 제조업이 당면한 지속적인 인력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전략들
- 도서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제 통계와 향후 전망
- 도서 제조업체들이 진화하는 산업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인쇄, 자동화,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 해외로의 생산 이전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포함해 점점 복잡해지는 도서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
- 주요 시장 부문 관련 최신 통계와 인쇄 도서 수요에 대한 통찰

NAPCO 리서치 데이터, 제3자 연구 및 보고, 그리고 여러 도서 제조업체와의 인터뷰를 종합 분석한 결과,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양한 인쇄 기술을 도입하고, 자동화 및 AI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며, 도서 산업의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간다면, 도서 제조업체들은 2025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성공을 거둘 준비가 완료될 것이다.

산업 현황 (INDUSTRY SNAPSHOTS)

2025년 1월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는 도서 판매 데이터 시스템인 서카나 북스캔(Circana BookScan, 이하 북스캔)의 연말 데이터를 인용해, 2년 연속 인쇄 도서 판매가 감소한 뒤 2024년 인쇄 도서 판매가 2023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이 상승폭이 1% 미만으로, 북스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최종 판매량이 7억 7,830만 부, 2024년 판매량은 7억 8,270만 부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의 수치와 비슷하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2024년 판매량이 2020년보다 3% 증가해 7억 8,270만 부를 달성했다는 점은 독서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은 연말에 강세를 보였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북스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서 판매량이 한 해 동안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판매량이 1.6% 증가했다고 전했다. 성인 소설 부문이 선두를 이끌었으며, 판매량은 약 5% 증가했다. 특히 판타지 장르, 그중에서도 로맨스(Romance)와 판타지(Fantasy)가 결합한 '로맨타지(Romantasy)'라는 하위 장르는 35.8% 성장하여 성인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성인 논픽션의 판매량은 0.5% 감소했지만, 전체에서는 가장 큰 부문을 유지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북스캔 데이터를 인용해 아동 부문이 어려움을 겪은 해라고 밝혔다. 아동 소설 판매량은 2023년에 비해 1.3% 감소했으며, 아동 논픽션은 2023년 대비 약 0.5% 증가하며 소폭 성장했다. 청소년 시장에서는 청소년 소설 판매가 4.3% 감소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청소년 소설 판매량이 2021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3,020만 부 미만으로 떨어졌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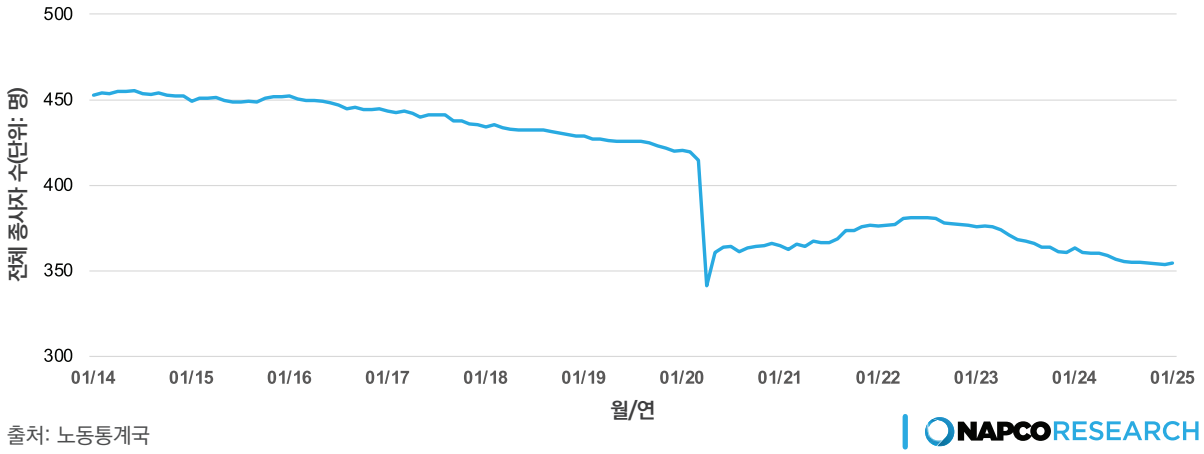
미국출판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이하 AAP)의 2024년 12월 『StatShot Report』에 따르면, 비거래 도서(Non-trade books, 특정 기관·전문 분야·교육 목적 도서) 부문에서는 일부 매출액이 증가했다. 특히 고등교육 교재 매출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또한 AAP는 2024년 종교 부문 출판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2025년은 미국 전체 경제에 있어 가장 예측 불가능한 해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부과, 이민 단속 및 추방, 정부 지출 감축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Ltd, 이하 딜로이트 LLP)의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와 거시경제팀 매니저 로빈 기버드(Robyn Gibbard)가 내놓은 2024년 12월 전망에 따르면, 몇 가지 경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들의 '기준 시나리오'는 2026년까지는 관세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2025년 무역 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2025년 수입이 4.4%, 수출이 3.2%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6년에는 두 지표 모두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에 2.4% 성장 후 2026년에는 1.7%로 하락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9~2.1% 사이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타 다른 인쇄 산업과 마찬가지로, 도서 산업에서도 인력 유치·채용·유지 등 인력 관련 여건이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2025년 이민 정책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어 제조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추가될 수 있으며,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 노동력 공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은 약 4% 수준을 유지했으며,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2025년 1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첫 달 실업률은 4.0%였다.

지난 10년 동안 인쇄 산업에서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노동통계국이 집계한 잠정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인쇄 산업 종사자 수는 약 35만 3,900명이다. 이 수치는 2020년 4월 최저치였던 34만 1,000명에서 회복된 것이지만, 2024년 2월 수치와 비교하면 1.9% 감소한 것이다. (그림 1) 이 데이터는 인쇄 산업 전체를 나타내지만, 도서 산업 역시 유사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 자동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인쇄 산업 종사자 수준 (단위: 천)



출처: 노동통계국

NAPCORESEARCH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화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일리노이주 이스트피오리아(Illinois East Peoria)에 본사를 둔 버사 프레스(Versa Press) 영업 총괄 이사 매트 케넬(Matt Kennell)의 말이다. 그는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거나 혹은 인력을 절감하는 대신 사업에 재투자해 매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는 업계의 인력 문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캐논 U.S.A(Canon U.S.A., Inc.)가 후원한 『인쇄 사업 전망 시리즈 상업 인쇄 보고서 2024년 가을호(Print Business Outlook Series Commercial Printing Report Fall 2024)』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19개 상업 인쇄업체 중 61.5%가 인력 확보 및 인건비를 자사 비즈니스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요인(7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표 1)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 인쇄업체 중 29.1%만이 해당 연도에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으며, 3분의 1 이상(36.7%)은 자동화로 인해 필요한 직원 수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절반 이상(55.7%)의 업체가 회사 내 공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표 1: 인쇄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

Q. 올해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긍정적/부정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부정적 요인	응답 비율
거시경제, 금리, 인플레이션 등	70.9%
인력 확보 및 인건비	61.5%
주요 시장 내 비즈니스 여건	41.7%
신용시장 조건, 신용 가용성, 금리 수준	34.6%
주요 자재의 가용성 및 비용	32.0%
전반적 비용 관리	29.8%
가격 인상 능력/시장 수용성	27.2%
고객 기반 확대·시장 다변화를 위한 투자	9.8%
고수익·고부가가치 고객 확보 능력	9.1%
AI 투자	8.7%
매출 증대를 위한 판매/마케팅 투자	8.7%
인력 개발·채용·유지 투자	8.7%
도산 경쟁업체로부터 일감 확보 능력	5.8%
생산성·자동화·속도 향상을 위한 투자	5.8%

조사 대상 표본 = 인쇄업체 119개

출처: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 『인쇄 사업 전망 시리즈 상업 인쇄 보고서 2024년 가을호』, 캐논(Canon U.S.A., Inc.)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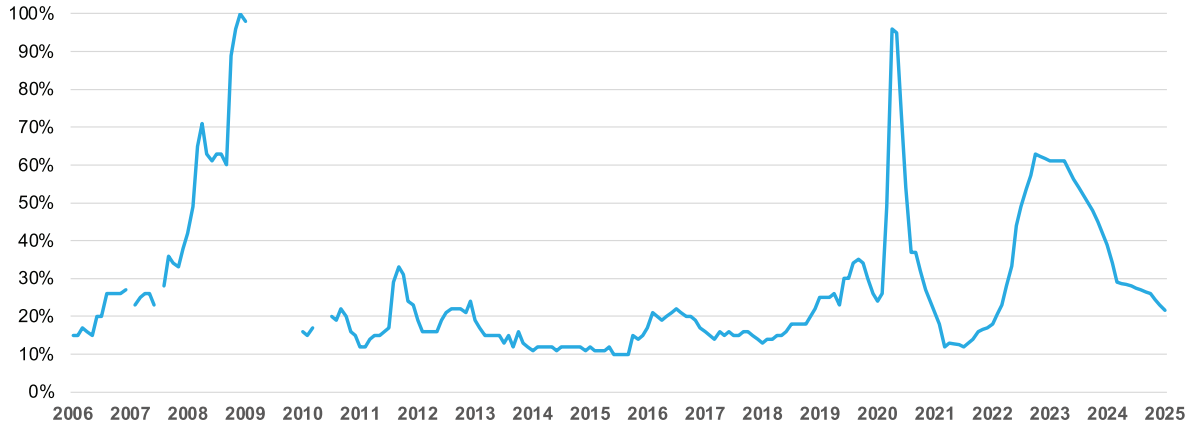
NAPCORESEARCH

일리노이주 뉴턴(Newton)에 본사를 둔 도서 제조업체 토털프린팅시스템(Total Printing Systems)의 릭 린데만(Rick Lindemann) 대표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력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일부 내부 프로세스에서 AI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보다는 주문 처리나 그와 비슷한 업무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 경제 동향 (OVERALL ECONOMIC TRENDS)

새 대통령 행정부가 출범하는 첫해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초 몇 달 동안도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의 지속적인 경제 전망 조사(Economic Forecasting Survey)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7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최근 3년 중 최저 수준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은 2년 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해 경기 침체는 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경제학자들은 2025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22%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향후 12개월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단위: %)



주: 공란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없음
출처: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학자 조사

NAPCORESEARCH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또 다른 경제적 문제가 202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인플레이션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는 올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10월 조사 당시 예상치였던 2.3%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이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CPI는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에 CPI가 2.9%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따르면, GDP 전망은 앞서 보고서에서 언급된 딜로이트의 아이라 칼리시와 로빈 기버드가 제시한 '기준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GDP 성장률 2%를 예상하고 있다.

고용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관측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사 결과, 연말까지 실업률은 4.3%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이다. 그러나 설문 참여자들은 2025년 이후에는 실업률이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화되는 산업
(AN INDUSTRY STABILIZING WITH VARIABLES UNKNOWN)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그 직후 시기, 도서 산업에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은 업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지난 5년간 산업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종이 수급 문제, 붕괴된 공급망, 제조업체와 출판사 모두의 과잉 재고 등이었다. 이러한 주요 과제들이 점차 해소되고 도서 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출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인쇄 발주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하고자 했다. 출판사들은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량 인쇄와 같이 더 효율적인 주문 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량 인쇄의 경우 해외 생산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생산의 위험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도서 제조업체들은 국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을 미국 내에 유지하게 만들 만한 외부 요인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 도서를 생산할 경우 출판사들은 아시아 등 해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긴 해상 운송 기간을 피할 수 있다. 매트 케넬은 이러한 업계 구조가 버사 프레스의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최신 낱장 오프셋(Sheetfed offset)과 디지털 인쇄기를 활용해 출판사의 단기 및 중기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북미에 도착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대량 주문은 해외에서 생산해 장기 수요를 맞추는 방식이다. 그는 버사 프레스가 주로 미국 내에서 인쇄하는 출판사들의 견고한 파트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외 혼합 모델을 통해 출판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황에 맞춰 조달 전략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비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은 관세가 부과되었다가 다음 날엔 연기되는 식이라, 고객사들은 매우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 애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털 프린팅 시스템즈는 도서 제작에 100% 디지털 인쇄 작업 과정을 도입하여 단기 소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릭 린데만은 고객들이 자사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주문형 인쇄(Print on Demand, POD)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디지털 인쇄 역량을 활용해 고객들의 재고 관리를 돕는다.

그는 "업계 전반이 대체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이렇다. 현재 대부분의 책들은 수만 부씩 팔리지 않는다. 좋은 책이라면 아마도 1~2년 동안 몇천 부 정도 팔릴 것이고, 이후에는 매년 수백 부 정도 판매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이며, 대다수의 책들이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 결국 모든 출판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인쇄 산업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도서 인쇄 부문도 전통적 인쇄와 디지털 인쇄 기술의 결합을 통해 '양쪽의 강점을 모두 갖춘(Best of both worlds)'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다. 150년 역사의 사내 도서 제작 및 유통 사업부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글로벌 인쇄 부문이 대표적 사례다. 코어 퍼블리싱 솔루션(Core Publishing Solutions) 브랜드는 2013년 상업 인쇄 기업으로 출범하여 톰슨 로이터의 법률 및 세무 출판물 카탈로그를 넘어, 인쇄, 후가공, 패키지 구성 작업, 창고 관리 및 주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어 퍼블리싱 솔루션은 웹 오프셋 기기뿐 아니라 단판 및 웹급지 방식의 잉크젯 인쇄(cut-sheet and web-fed production inkjet)에 투자하여 출판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톰슨 로이터 글로벌 프린트·제조·운영·유통 담당 스티브 즈베버(Steve Zweber) 부사장은 많은 출판사가 오프셋과 디지털 인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두 방식의 인쇄 품질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가 인쇄 작업의 최적 비용을 고려해서 디지털 인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과거와 비슷한 전체 물량을 생산하면서도 더 짧은 제작 주기와 더 잦은 주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스티브 즈베버는 "기술이 발전한 현재, 비전문가가 봐서는 디지털 인쇄와 오프셋 인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출판사와 구매자들은 제작 방식보다는 고품질과 경제적인 면을 우선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도서 판매량은 정체 상태이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어서 총생산 부수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고를 더 면밀히 관리하기 위해 초판 및 증쇄 작업이 더 많이 분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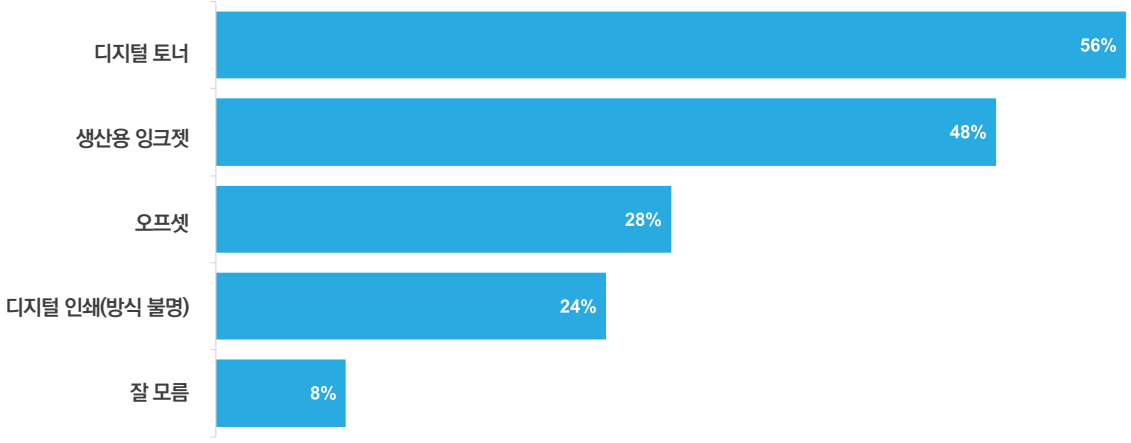
이어서 그는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 체계를 모두 보유하면 출판사가 도서 수명 주기(Lifecycle)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높은 베스트셀러는 웹 오프셋으로 대량 인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수요가 적거나 틈새 시장을 겨냥한 도서는 디지털 인쇄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특정 도서의 수요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출판사들은 디지털 인쇄를 이용해 책을 출간하고 시장 반응을 본 후, 수요가 높으면 오프셋 인쇄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스티브 즈베버는 "출판사들은 자사의 전체 도서 중 일부만 제작할 수 있는 도서 제조업체를 찾지 않는다. 코어 퍼블리싱 솔루션은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초판 인쇄 및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책은 우리의 웹 오프셋으로 대응하고, 출간된 지 좀 지난 책의 재쇄나 시장 규모가 작은 책은 그에 맞게 대응한다."라고 전했다.

그림 3: 인쇄 도서 구매자/영향력자들이 활용하는 인쇄 기술

Q. 귀사에서 제작하는 책은 어떤 방식으로 인쇄됩니까? (복수 응답 가능)



조사 대상 표본 = 도서 구매 또는 제작에 영향을 미치며, 자사에서 사용하는 인쇄 공정에 익숙한 커뮤니케이션 분야 구매자 및 영향력자 응답자 25명

출처: 『생산용 잉크젯 실현(Production Inkjet Delivers)』, NAPCO 리서치, 2024

주: NAPCO 리서치의 2024년 보고서 『생산용 잉크젯 실현』에서 발췌한 것으로, 인쇄 도서 구매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인쇄 기술을 보여준다.

NAPCORESEARCH

NAPCORESEARCH

공급망 문제 해결 (TACKLING SUPPLY CHAIN CONCERNS)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벗어나면서, 도서 제조 산업은 변화된 주문 전략과 인쇄·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작업 흐름에 적응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출판사와 도서 제조업체의 관계에서는 원활한 소통과 투명성 제고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는 양측 이해관계자들이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서 산업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조직인 도서산업연구그룹(Book Industry Study Group, BISG)의 전무 이사 브라이언 오리어리(Brian O'Leary)는 산업 공급망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서 제조업체와 출판사가 공통으로 바라는 개선 사항 중 하나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출판사는 정확한 도서 생산 계획을, 제조업체는 생산 가능한 물량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출판사가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 향후 발주 시 작업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책이 갑자기 인기를 끌어 빨리 재쇄를 계획하더라도, 파트너 제조업체들은 미리 알 수 없다. 보통 제조업체가 받는 것은 단순한 주문뿐이고, 왜 그런 주문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며, 예측하기도 어렵다."라고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덧붙였다.

공급망에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자사 도서의 수요 예측과 도서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문을 결정하기 전 가능한 한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면 유리하다는 점이다. 최신·최적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출판사가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제조업체는 해당 작업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매트 케넬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신 마케팅 데이터와 사전 주문 수치를 활용해, 책이 서점에 진열되는 날짜와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해야 한다. 현재의 예측은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종의 추측 게임과 같다. 재고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상황에 어떤 가치(비용)을 부여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도서 산업은 지난 5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공급망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출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스티브 즈베버는 전했다. 출판사들의 발주를 보면 인쇄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024년 내내 출판사들이 재고를 줄인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배운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인쇄 발주자, 출판사, 공급망 담당자들은 이제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공급업체의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검증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공급업체가 인쇄 기술을 교육받았는지뿐 아니라, (과잉 생산되어) 오랫동안 남는 재고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지도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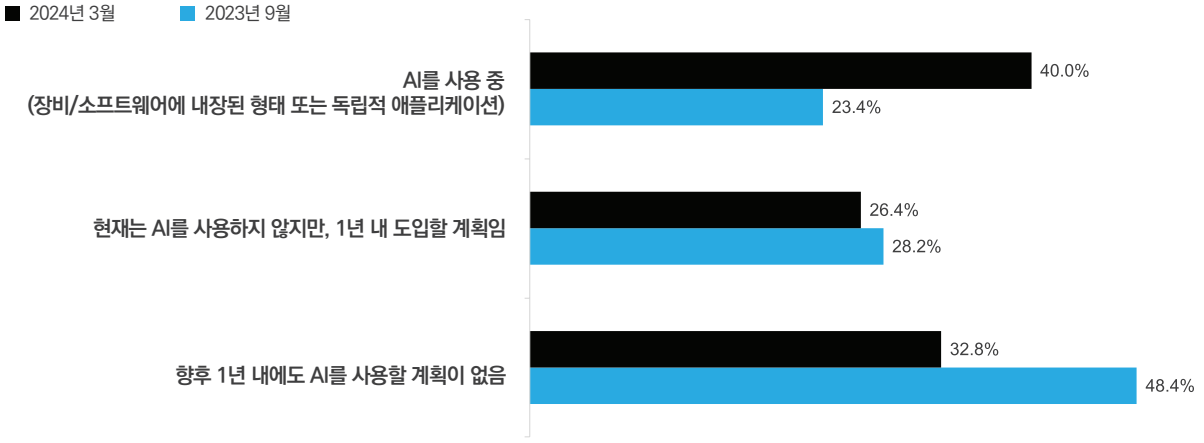
도서 생산을 향상시키는 기술 발전
(TECHNOLOGICAL ADVANCEMENTS ENHANCING BOOK PRODUCTION)

도서 제조 산업에서 디지털 인쇄의 도입과 확산을 넘어, 기술 발전은 거의 모든 생산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도서 제조업체들이 주목하는 주요 기술 발전 중 하나는 자동화이며, AI가 이에 해당한다.

인쇄 산업 전반에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AI 도입 단계가 각기 다르지만,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와 NAPCO 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인쇄 산업의 AI: 여정의 시작(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rinting Industry: The Journey Begins)』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인쇄업계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기술이다. 특히, 2024년 3월 기준 조사에 참여한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의 40%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9월의 2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그림 4).

그림 4: 인쇄 제공업체의 AI 활용 증가

Q. 귀사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조사 대상 표본 = 인쇄 제공업체 191개
출처: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 『산업 현황 조사』, 2023년 3분기·2024년 1분기, 캐논 후원

NAPCORESEARCH

한편, 프린팅 유나이티드 얼라이언스의 2024년 1분기 『산업 현황 조사(State of the Industry Survey)』에 참여한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AI를 주로 콘텐츠 제작(29%)과 마케팅(16.1%)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운영 부문에서는 13% 미만이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털 프린팅 시스템즈의 릭 린데만은 자사가 아직 AI 도입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일부 기초 영역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고객 응대가 필요 없는 업무에 AI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고객 서비스 부문은 전적으로 사람이 통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은 과정의 초기 단계이다. 우리는 계속 개발 중이다. 몇 가지 간단한 프로세스는 이미 자동화되어 잘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프로세스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버사 프레스의 매트 케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사가 자동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제본과 후가공 장비가 핵심 대상이었으며, 버사 프레스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 덕분에 12명의 초급 인력(Entry-level positions)을 줄일 수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버사 프레스는 모든 제본 라인을 공통 플랫폼에 통합하여, 실무자들이 하나의 첨단 플랫폼에서 여러 제본 장비 간 전환 및 회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기술 투자로 인해 제본 작업 교대조마다 작업 인원을 한 명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교대조마다 한 명의 직원을 덜 쓰면서도 전체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증가되었다.

매트 케넬은 이러한 자동화 덕분에 버사 프레스가 몇 년 전 매우 어려웠던 노동 시장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한 기초 업무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실무자급, 즉 핵심 장비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급여를 받는 인재 확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제본 자동화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조치였다. 만약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인력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부족했을 것이다. 이 자동화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는 생산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에 모든 설비를 온전히 가동시킬 수 있었다. 오늘날 노동 시장은 좀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매일 문 앞에 지원자들이 줄을 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실무자가 될 만한 자질이 있고 많은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후보자들을 많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채용한 직원을 훈련한 후 실무에 투입시키는 전통적인 견습 모델에서 벗어나, 인재를 바로 실무자로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어 퍼블리싱 솔루션은 자사 작업 공정 전반에서 자동화와 AI 솔루션을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해 왔다. 여기에는 프로그래밍이 거의 필요 없고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사람과 함께 작업해도 안전한 협동 로봇(Cobots) 사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솔루션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이상적이다. 또한 협동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이 부가가치가 더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스티브 즈베버는 인쇄 부수가 감소하는 한편 전체 생산 작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 자동화가 회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AI와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생산의 이점 입증하기
(DEMONSTRATING A DOMESTIC ADVANTAGE)

모든 제조 분야에서 해외 생산 이전은 늘 잠재적 위협 요소이다. 도서 제작도 마찬가지인데, 출판사들이 책을 해외에서 인쇄함으로써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내 도서 생산이 가진 뚜렷한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은 남아 있다.

도서 제조업체가 국내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출판사에 미국 내 인쇄의 유연성과 리스크 감소 효과를 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해외에서 인쇄할 경우 출판사는 수량을 과다하게 발주하는 위험에 처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는 긴 공정 및 납품 기간(Lead time)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발주 수량을 확정해야 할 뿐 아니라, 해외 생산에 따르는 긴 배송 시간 때문에 추후 도서를 추가 주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인쇄 단가는 저렴할 수 있지만, 판매되지 못하고 남는 재고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쇄 단가'가 아니라 '실제로 판매된 책 한 권당 비용'이다. 만약 1만 부를 인쇄했는데 실제로는 3천 부만 팔린다면, 단가는 권당 세 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내 인쇄가 합리적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매트 케넬은 해외 인쇄가 출판사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판사들이 의도적인 '분할 조달(Split sourcing)'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다. 이 모델에서는 출간 직후부터 수요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는 신간은 초기 수개월의 판매 분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 후의 대량 물량은 해외에서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해외 배송이 3개월이 걸리더라도 초기 수요는 국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체 재고의 평균 단가는 저비용으로 생산한 해외 물량 덕분에 상쇄되어 크게 낮아진다.

매트 케넬은 버사 프레스가 출판사들에게 이러한 방식을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출판사들은 최근 전 세계 공급망 혼란 기간 동안 발생한 배송 지연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이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 온 전략 중 하나다. 즉 '분할 조달' 방식을 통해 위험을 줄이면서도, 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생산 단가로 미국의 높은 단가를 상쇄함으로써 수익 구조에 부합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만약 해외 생산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생산을 다시 해외로 돌리는 결정은 쉽다. 하지만 현재 출판사들은 책 재고가 떨어졌을 때 곧바로 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장 부문 동향 (MARKET SEGMENT WATCH)

코로나19 팬데믹 정점 이후 인쇄 도서 수요는 감소했지만, 2024년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 부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북스캔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년 연간 판매 부수가 2023년 대비 0.6% 증가해 7억 7,830만 부에서 7억 8,270만 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성인 소설(Adult Fiction)은 다시 한번 성장의 주요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성인 소설 판매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판타지(Fantasy) 장르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 판매량이 35.8% 증가했다. 2024년 성인 소설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크리스틴 해나(Kristin Hannah)의 『The Women』으로 14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며 연간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세라 J. 매스(Sarah J. Maas)의 『A Court of Thorns and Roses』는 130만 부 가까이 판매되며 성인 소설 시장에서 판타지 장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표 2: 분야별 인쇄 도서 판매량 (단위: 천 부)

분야별 인쇄 도서 판매량

분야	2023	2024	변화율
성인 소설(Adult Fiction)	191,508	200,717	4.8%
성인 논픽션(Adult Nonfiction)	293,938	292,538	-0.5%
아동 소설(Juvenile Fiction)	179,507	177,114	-1.3%
아동 논픽션(Juvenile Nonfiction)	62,525	62,787	0.4%
청소년 소설(Young Adult Fiction)	31,551	30,197	-4.3%
청소년 논픽션(Young Adult Nonfiction)	4,509	4,718	4.6%

출처: 〈퍼블리셔스 위클리〉 내 북스캔 데이터 인용

NAPCORESEARCH

2024년에는 성인 소설이 판매 성장세를 주도한 반면, 청소년 소설(Young Adult Fiction)은 전년 대비 4.3% 감소하며 130만 부 이상 판매가 줄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성인 논픽션(Adult Nonfiction)의 판매량이 0.5% 감소했다고 보도했으나, 몇몇 두드러진 베스트셀러가 눈에 띄었다.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The Eras Tour Book』은 미국 유통업체 타깃(Target)에서 독점으로 12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또한 제임스 클리어(James Clear)의 자기계발서 『Atomic Habits』는 98만 2,000부로 100만 부에 근접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또한 J.D. 밴스(J.D. Vance)의 『Hillbilly Elegy』는 2024년 가장 놀라운 역주행 베스트셀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이후, 이 책은 판매가 급증해 7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결론 및 제언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Being Prepared for the Unknowns)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부침을 겪은 뒤, 도서 제조 산업은 안정화를 목표로 해왔으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의 발주 행태 변화, 기술 발전, 인력 부족, 불확실한 경제 환경 등 업계가 맞서야 할 중대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몇 년간 출판사와 제조업체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고를 줄이는 것이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보유 도서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쌓인 원자재가 문제였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특히 출판사들은 과잉 재고와 절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적은 수량을 더 자주 주문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어려운 노동 시장 속에서도 생산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생산 기술, 자동화, AI에 투자해야 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연한 제조 방식을 수용하는 전략은, 비록 안정화되는 추세라 해도 여전히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도서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임이 입증되고 있다.

토털프린팅시스템의 릭 린데만은 "도서 제조 분야의 새로운 기회는 재고 관리를 돕는 데 있다. 가능한 한 재고를 없애고 필요할 때 바로 생산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접근 방식에 열린 태도 가지기
(Be Open Minded to New Supply Chain Approaches)

공급망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제조업체와 출판사 모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서산업연구그룹은 업계 공급망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판사가 제작 계획을 사전에 더 투명하게 공유하고, 제조업체는 생산 능력에 대한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더해,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면 업계 전체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업계 관계자들이 경직된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에서 도서 제조업체들이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 전체 출판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산업연구그룹의 전무 이사 브라이언 오리어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제 중 하나는 예측, 수요 계획, 공급 계획 등에 대해 모두가 공통된 이해를 갖는 것이다. 이는 출판사들이 필요로 하고 제조업체들이 원하는 요소, 즉 '업계 동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술적 이점을 활용한 경쟁우위 확보
(Embrace Technological Advantages to Gain a Competitive Edge)

오늘날 어떤 제조 산업에서든 AI는 피할 수 없는 화두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업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인쇄 산업에서도 AI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업계를 뒤흔들 필연적인 혁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APCO 리서치가 발표한 『2024년 인쇄 산업의 AI: 여정의 시작』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조사 대상 인쇄 서비스 제공업체의 40%가 이미 일정 수준의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이지만, 2023년 9월 당시 AI를 도입한 인쇄업체가 23.4%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인쇄업계에서 AI의 급속한 확산을 보여주는 수치다. 아직 AI를 도입하지 않은 도서 제조업체라면 지금이 AI 탐색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은 생산 과정에 AI 도입하는 것이 많은 업체에서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인력 작업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디지털 인쇄의 발전이 업계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도서 제조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출판사들이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더 빠른 납기와 출고 방식을 찾는 환경에서 디지털 인쇄는 단기·소량 인쇄에 강점이 있어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서 인쇄의 해외 이전 문제가 현실로 남아 있다. 디지털 생산 공정을 갖춘 미국 내 도서 제조업체들은 책이 출간된 직후 단기간 소량 주문을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출판사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출판사들이 해외로 생산을 돌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긴 해외 배송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인 오프셋 인쇄와 디지털 인쇄 기술을 다양하게 조합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현재 업계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제조업체와 출판사가 각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책을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스티브 즈베버는 “핵심은 장기 대량 작업을 위한 특수 설비와 단기 디지털 작업용 설비를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두 영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장비까지 갖추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NAPCORESEARCH

WHO WE ARE

NAPCORESEARCH

NAPCO 리서치(NAPCO Research) 소개

NAPCO 리서치는 당사가 관여하는 시장에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고객층, 업계 전문가, 사내 연구 역량을 결합해 데이터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작한다. 우리는 고객사와 협력하여 고유한 비즈니스 과제를 파악하고,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NAPCO Research가 제공하는 지원 분야

- 비즈니스 목표 우선순위 설정
- 기회 발굴
- 시장 세분화
- 산업 환경 분석
- 사용자 요구 및 선호도 파악
- 제품 기능 및 특성 분석
- 콘텐츠 마케팅 전략
- 영업 전략 및 전술
- 시장 상황 분석
- 벤치마킹
- 업계 동향 분석
- 브랜드 인지도 제고

우리가 귀사의 연구 요구 사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research@napco.com으로 연락하여 당사 분석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APCO RESEARCH

WHO WE ARE

도서제조협회 (Book Manufacturers' Institute, BMI) 소개

BMI는 북미 지역의 독자와 교육자를 위한 도서 시장의 활성화, 효율성 제고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 제조업의 리더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무역 단체다.

1933년 설립 이후, BMI는 회원사와 도서 제조 산업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가치를 제공해 왔다. BMI 회원사는 종합 도서 제조업체부터 디지털 인쇄 전문 업체, 특수 제본업체, 부품 인쇄업체, 포장업체, 장비 제조업체, 그리고 다양한 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COVER PHOTO: DANIEL GRIZELJ / DIGITALVISION VIA GETTY IMAGES

A2503043